

圓寂

曹溪宗 元老議員 圓空堂 正無大宗師 元老會議葬



- 永訣日時：佛紀 2555(2011)年 10月 3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第2教區 本寺 龍珠寺
- 茶 毘 場：安城 石南寺 蓮花臺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圓空堂 正無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臨 終 偈

“내가 이 세상에 인연이 있어서 왔다가
정직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다가니
도솔천 내원궁에서 함께 만나자.”

式 順

사회 정만스님

- ◎ 명 종 (5타)
- ◎ 삼 귀 의
- ◎ 영결법요 세민스님, 원오스님
 - 헌다, 헌향 : 문도대표
- ◎ 행장소개 현응스님(교육원장)
- ◎ 추도입정 육성법문
- ◎ 영 결 사 종산대종사(원로회의 의장)
- ◎ 법 어 법전대종사(종정)
- ◎ 추 도 사 자승스님(총무원장)
- ◎ 조 사 보선스님(중앙총회의장)
- ◎ 조 사 정호스님(문중대표)
- ◎ 조 사 이 황(신도대표)
- ◎ 조 가 용주사 효행합창단, 신륵사 연꽃합창단,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
- ◎ 현 화 각계대표
- ◎ 인사말씀 문도대표
- ◎ 발 인

圓空堂 正無大宗師 行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원공당 정무대종사께서는 1931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하시고, 1958년 전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졸업하던 그해 전강스님을 친견하시고 군산 은적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비구계는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수지 하셨습니다.

스님께서서는 한결같이 일상에서의 수행을 강조하셨는데 행주좌와의 일상 속에서 실천적 수행을 몸소 보여 오셨습니다. 수행에 대해 묻는 이에게 “기도, 참선, 주력, 경전 공부 등 어떤 특정한 수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을 행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실천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므로 습관이 중요하다. 병이 생겼을 때 의사가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을 바로 잡아나아가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1966년 당시 종단의 혼란으로 인하여 쇠락하던 영주 포교당을 정화하고 2박 3일 수련회를 개최하여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시원을 열게 하셨습니다.

효 사상으로 청소년의 심성을 치유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던 스님은 1971년부터 1983년까지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로 재임하시면서 선원 외호에 주력하셨고, 한글부모은중경탑을 건립해 사람들로 하여금 효사상을 고취하는데 많은 열정을 기울이셨습니다. 신도수련회와 대학생불교학생회 수련회를 시작하시면서 포교에도 지대한 관심을 쏟으신 스님께서서는 포교자료집을 자체적으로 발간해 배포하는 등 신도교육과 포교에도 열의가 높으셨는데, 지난해까지도 여분의 보시금이 생기면 대학생불교학생회에 쾌척하며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생활은 늘 검소하셨습니다. 겨울에도 웬만한 추위에는 방에 불을 넣지 않고 지낼 정도셨습니다. 또 법문이나 결혼식 주례 등 스님을 초청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 자리를 따지지 않고 흔쾌히 수락하셨고, 버스와 지하철로 법문을 다니면서 삼보정재를 아끼셨지만, 포교를 위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낌 없이 쾌척하곤 하셨습니다.

대구 정법거사림회, 한국관음회, 세무대학불교학생회, 경찰대학불교학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법사를 역임하시면서 끊임없는 포교 원력을 실천해오셨습니다. 스님의 검소하고 소박한 평소 모습은 사찰 불사를 할 때도 직접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시며, 나무 한 조각이라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면서 불사를 지도하셨습니다.

정무스님은 또한 항상 수행자의 본분을 강조하고 실천하셨습니다. 1963년 김제 흥복사에서 5하안거를 지내신데 이어,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법주사 복천암 등 전국의 선원을 찾아 참선수행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새벽 3시 기상, 4시 예불, 5시 참선, 6시 공양, 7시 청소, 9시~11시 면담 및 공부, 11시 헌공... 오후 8~9시 공부, 10시 취침’의 일과표를 방에 붙여놓으시고 철저하게 정진을 하셨습니다. 평생 방 청소와 빨래를 남에게 미루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하셨습니다.

문서포교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스님은 <용주사 본말사지>를 발행한데 이어 <정명의 길> <은혜를 갚은 사람> <평생공부> <마음공부>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내셨습니다.

스님이 재가불자들에게 “첫째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살며, 둘째 본성을 해치는 직업은 삼가하라. 셋째 시간과 돈은 일의 가치 순위로 쓰며, 넷째 항상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고, 다섯째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라.”는 지침을 남기셨습니다.

원로의원 정무스님은 입적을 예견하신 듯, 지난 8월 오랫동안 법문 인연을 맺은 대구 법왕사를 찾아 ‘회향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집에서도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말년에 주석하신 안성 석남사에도 한글부모은중경탑을 건립해 많은 이들에게 효 사상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인간행의 덕목임을 알리는데 진력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인연 따라 왔다가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 간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우리 거기서 만나자”는 임종계를 남기시고 빛으로 가셨습니다.

圓空堂 正無大宗師 年表

출생

1931년 4월 19일(음)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에서 출생

득도

1958년 1월 군산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계사(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5년 3월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선사를 계사로 보살계 구족계 수지

수선안거

1963년 4월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선사를 조실로 3하안거 성만

1966년 4월 대구 동화사에서 효봉선사를 조실로 3하안거 성만

1987년 10월 속리산 복천암에서 3하안거 성만

수행 및 포교

1968년 10월 영주 포교당 주지

1970년~1984년 제 3, 4, 5, 6대 중앙종회 의원

1971년~1982년 제 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1981년 3월 조계종 중앙종회 선거관리위원

1982년 4월 세불회, 경불회 지도법사

1982년 4월 대불련 경기도 총재

1982년 8월 수원 교도소 교정위원

1982년 10월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위원

1983년 4월 세계불교 대법회 지도위원

1983년 6월	여주 신륵사 주지
1986년 5월	여주 경찰서 경승법사
1986년 12월	범민족 올림픽 추진위원
1987년 5월	용인 경찰대학 지도법사
1990년	대구 법왕사 회주
1993년 4월	용인 경찰서 경승법사
1999년 7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원
2000년~2010년	안성 석남사 주지
2007년 4월	조계종 원로의원 추대
2007년 12월	포교대상 수상(종정 표창)
2008년 10월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수
2008년 10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법사



永訣辭

원공당圓空堂 정무대종사正無大宗師여!

대종사께서는 납자로 살아온 55년 동안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 정신을 실천으로 옮겨온 이 시대 청빈의 사표이셨고, 공부를 이어감에 방일하지 않은 영원한 공부인이셨습니다.

평생 청빈의 삶을 이어오며 공부에 전념하셨던 대종사께서는 또한 그렇게 살아오셨기에 삶과 죽음도 이미 초월하여 생사에 자유로운 대자유인이셨습니다.

그 옛날 서산 휴정 대종사께서 임종을 맞아 “삶은 한 조각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은 한 조각구름이 스러짐이라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러하다(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浮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고 하셨듯이,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 올 때는 정신없이 왔다마는 갈 때는 분명하구나. 아미타불 극락세계 나의 고향이로다. 나그네 세상 즐겁게 살다 가노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실로 삶과 죽음이 한 조각 구름 일어나고 스러짐이라 여기고, 나그네 세상 즐겁게 살다 가듯이 생사에 초연하고도 자재하셨던 분이십니다.

대종사께서는 그러면서도 대중에게 “때와 장소를 가려 수행한다면 이 또한 어불성설” 이라며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수행 아닌 때가 없고, 수행 아닌 것이 없음을 고구정녕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제 더 이상 대중사의 그 가르침을 들을 길 없게 되었으니, 어찌 슬프고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대중은 대중사께서 계시지 않은 빈자리를 보며 슬퍼하는 대신, 대중사께서 일러주신 그 가르침을 받들어 조사 희롱에 놀아나지 않도록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여 기필코 나그네 세상 즐겁게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중사께서 한 평생 일여한 모습으로 목마른 대중에게 청량한 감로수가 되어 주셨듯, 사바세계 모든 중생이 감로수에 젖어드는 극락세계가 현세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사여!

그럼에도 저희들이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속환사바 하시어 미혹한 중생들을 이끌어 주소서.

불기2555년 10월 3일

大韓佛教曹溪宗 元老會議 議長 宗 山 焚香

法 語

산과 들에 금풍이 불고 지난밤 뜰앞에 잎이 지더니
우리 종문의 눈 밝은 선지식善知識이신 정무대종사大宗師께서
환귀본처還歸本處하여 법계法界의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셨습니다.
종사宗師는 일찍이 산문山門에 귀의하여 일념정진으로 육조六祖의 종지와
임제臨濟의 현의玄義를 밝히고 이어서 빛바랜 우리 선문禪門을 지킨
대종장大宗匠이었습니다.
지금 견문각지를 거두시고 말이 없으시니 너무 공적하고
그 성성惺惺하던 주인翁主人翁을 뵈올 길이 없습니다.
근진根塵을 형탈迥脫하여 공적하지만 종사宗師가 본래부터 구족한 자성自性은
시작이 없으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령神靈스러우며 비록 형상이 없어
보이지 않지만 종말終末이 없이 법계法界에 가득합니다.

오늘 사대四大를 버리고 공적일여空寂一如를 이룬 것은
스님의 본분本分을 나툰 것이요.
담적湛寂하고 응연凝然함은 스님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고
생사生死가 없는 해탈解脫의 진상真相입니다.
이제 본분本分으로 임운자재任運自在하시니 모든 장애에 걸림 없이 오고 갈 것이며
부름이 있는 곳에는 그 모습을 나투어 은현자재隱現自在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一機 일경一境을 통해 종사宗師의 일점영명一點靈明은
재재처처在在處處에서 나툰 것입니다.

비록 열반적정涅槃寂靜에 드셨지만

종사宗師는 적멸寂滅이 안락安樂이 되는 진상真相을 우리들에게 보이셨고

본분상本分上에 생몰生沒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종사宗師가 남긴 공적空寂하고 응연凝然한 본분일구本分一句에
화답和答하겠습니까.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손을 놓는 법은 알아야

종사宗師가 열어 재친 대적관大寂關의 소식을 알것ियो

보고 듣고 깨닫는데 걸리지 않아야 모든 결박에서 벗어 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종사宗師의 사중득활死中得活과 활중득사活中得死의 자재함이 있고

공겁이전空劫以前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사宗師가 우리에게 할囑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창천蒼天 창천蒼天이로다.

불기2555년 10월 3일

大韓佛敎 曹溪宗 宗正 道林 法傳 焚香

追悼辭

원공당 정무큰스님!

하루를 사이에 두고 도천큰스님과 함께 세연을 접으시니 창졸간에 종단의 두 종장을 여인 저희들은 황망함과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평소 ‘우리는 지구대학교 불교대학 보살학과 봉사반에 입학한 것이니 평생 공부와 봉사를 해야 한다’ 고 하시며 몸소 실천하시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시고 ‘부처님도 80년 2월까지 포교하셨다’ 고 하시며 청하는 자리가 있으면 장소를 불문하고 왕립하시어 감로법을 설하시더니 이제 세수 여든 하나, 부처님의 자취를 따라 지구대학교를 졸업하십니까? 지난 8월의 법석을 ‘회향법문’ 이라고 하셨던 것은 정녕 오늘 일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까?

일찍이 근본사를 풀어줄 스승을 찾아다니시다가 ‘은적사에 도인 있다’ 는 말을 듣고 전강 큰스님 회상에 출가한 이래로 큰스님께서는 한시도 수행과 포교의 본분사를 등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스승께서 주신 ‘관치생모板齒生毛’ 의 화두를 놓지 않으시면서 스승을 따라 도봉산 쌍룡사, 김제 흥복사, 대구 동화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화두 타파를 위한 수행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탄허, 관음 스님 등 대강백으로부터 교학을 전수하셨으니 스님께서는 교와 선을 겸비한 큰 스승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큰스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대중교화를 위해 힘쓰신 일입니다. 1968년 안거를 나기 위해 범어사 선방으로 가시던 중 하룻밤 묵은 인연으로 영주포교당에서도 심포교를 시작하시면서 큰스님은 현대 불교의 포교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처음으로 신도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신도교육의 기틀을 잡으셨고 2박 3일간의 정진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수련회의 효시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포교자료집을 발간하여 불자들로 하여금 수행과 공부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1971년부터는 이곳 용주사의 주지 소임을 맡아 당시 퇴락했던 용주사를 재건하셨습니다. 용주사 사적비를 세우는 한편 대웅전, 지장전, 요사채 등을 보수하여 용주사의 면모를 일신하고 선원을 개원하는가 하면 정부 소유로 있던 6만평의 땅을 이양 받음으로써 용주사의 기틀을 확립하셨습니다. 이런 외적인 불사 외에도 용주사를 ‘효행 본찰’ 로 만든 것은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주사는 물론 안성 석남사 등 주석하시는 곳마다 부모은중경탑을 세운 것은 효 사상이 인류가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사상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부

모의 은혜를 알면 천지만물의 은혜를 알게 되고, 천지만물의 은혜를 알게 되면 물건이든 시간이든 어느 하나 낭비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스님의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고 청빈하셨습니다. ‘편리함을 쫓는 마음이 가장 큰 수행의 걸림돌이자 불행의 시작’ 이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으셨고, 세탁기를 마다하고 손수 빨래를 하셨습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수세식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전통 해우소를 마련하여 직접 거름을 내어 밭을 일구셨습니다. 이는 출가하신 이래 50년간을 백장청규 정신으로 일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분의 보시금이 생기면 항상 대학생과 청소년 불자들에게 쾌척하시며 후학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또한 항상 탁마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시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강연을 듣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것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수행 마쳤다고 책 안 보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며 ‘항상 좋은 책을 가까이 하라’ 고 가르치시고 계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청빈과 강단의 수행자, 정무 큰스님!

이제 이 감로의 법문을 어디에서 청하여야 합니까? 지난 8월 회향법문에서 ‘바른 생활을 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바른 정신을 지니는 불자들이 되라’ 고 부촉하시더니 이제 도솔천 내원궁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며 떠나시면 목마른 중생들은 어디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열반하실 때 말씀처럼 인연따라 오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을 은혜를 갚고, 봉사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스님의 감로 법문을 청하는 중생으로 가득합니다. 석남사 주련에 쓰신 것처럼 ‘서운산 아래 금광루에서 부처님 광명 다시 빛내기’ 위해 빛으로 돌아오소서.

불기2555년 10월 3일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慈 乘 焚香

弔 辭

圓空堂 正無 大宗師님

萬古江山에 날이 저무니 붉은 산이 바람에 슬피울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곳에서

老師에게 玄妙한 道理를 물어보고

낮은 소리로 奧妙한 要訣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검은 구름 가득하고

가을 기운 담은 솔바람만 쓸쓸히 불어옵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원공당 정무 대종사께서는

우리시대 金剛의 寶珠셨습니다.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 늘 낮은 데로 흐르시며

衆生을 토닥였고,

銀山鐵壁에 부딪친 衲子들에겐

할과 방의 현묘한 도리를 내보이셨습니다.

위로는 하늘을 덮으셨고

아래로는 땅을 일구셨습니다.

해와 달, 바람

그리고 萬가지 사물이 대종사의 넉넉한 품안에서

뛰놀다 가슴 벅찬 환희심 얻었습니다.

대종사의 크나큰 威神力은 세상법계 두루 밝히신 것입니다.

원공당 정무대종사께서는

길 잃은 모든 중생들의 무명을 밝히는

금강의 보주셨던 것입니다.

원공당 정무대종사님

얼마 전 대중사님께 問安드릴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빙그레 웃으시며
제 손을 꼭잡으셨지요.
그리고 종단의 大小事일을 당부하며
‘公心’을 당부하셨습니다.
소임자의 ‘公心’은 종단을 살리고
사부대중을 즐겁게하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德化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공당 정무대중사님
지금도 제 손바닥엔
스님의 따스하고 온화한 미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탓일까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스님의 法香이 벌써 그립습니다.
圓空堂 正無 大宗師님
萬古江山이 슬피울고 있습니다.
가련한 나그네는
이제 어느곳에서
老師에게 玄妙한 道理를 물어보고
낮은 문답으로 奧妙한 要訣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붉은 골짜기에 검은 구름 가득하고
가을 기운 담은 솔바람만 쓸쓸히 불어옵니다.
노사여 가신듯 금강의 보주로 우리곁에 다시오소서.

불기2555년 10월 3일

大韓佛教曹溪宗 中央宗會 議長 普 善 焚香

弔 辭

정무사형스님!

“욕망과 허세의 거품이 삶을 힘들게 하고”

“이 순간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수행이고”

“상相내는 마음이 수행자의 가장 큰 장애” 라고

늘 말씀하시며 근검절약으로 사셨던 평생의 모습은 수행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연히 원적圓寂에 드시니 황망할 따름입니다.

스님께서서는 50여년전 군산 은적사에 주석하시던 전강 큰스님과의 인연으로 사제의 연을 맺었습니다. 저와는 문형제의 연으로 판치생모板齒生毛의 화두로 정진하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오늘 무상無常을 보이심은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가르침인지요.

스님께서 65년 밀양 표충사에서 사명대사의 유물 ‘분충서난록, 사명집, 제영록’ 등의 판본을 정리해 펴내셨습니다.

사명대사께서 남기신 보물이 오늘날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큰 공덕입니다.

3년 후 영주 포교당에 인연이 되었는데 폐사가 되다시피 방치되었던 절을 살려야겠다는 대 원력으로 정진하시어 오늘날 영주포교당을 수행도량으로 있게 한 것도 스님의 수행력이었습니다.

71년부터 12년간 용주사 주지 소임을 보시면서는 부모은중경 탑을 건립하셨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을 수 없듯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수 없다하셨습니다. 부모은중경 설법을 하시면서는 “효는 백가지 행동의 근본이란 가르침은 굳이 유학의 도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도리” 라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용주사가 효행도량으로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일전에 저와 함께 인도에 가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자고 하셨습니다.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그 약속 지키지 못해 아쉽고 허전합니다. 제가 인도에 갈 때 사형님이 옆에 계신 줄 알겠습니다.

사형님!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년을 탐낸 마음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라며
정진하시던 모습 볼 수가 없으니 아련합니다.

부디...
생사가 없는 열반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5년 10월 3일
田岡門徒會 代表
第2教區 本寺 龍珠寺 住持 正 乎 焚香

弔 辭

우리 모두에게 친근하셨던 정무 큰스님

우리 불자들에게는 스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늘 환희심을 주셨었던 인자한 스님께서 돌연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안성 석남사에 주석하시다 가셨지만 우리나라 방방곳곳의 많은 크고 작은 절에서 일생을 수도와 포교를 하시며 사셨으니 우리 모두의 스님이셨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본래 선승이나 선승의 티를 들어내시지 않으셨고, 대종사로 모셔졌으나 대종사의 위엄을 보이시기보다 고향의 친정어버이 같이 동네 할아버지처럼 다가가서 귀의하고 싶은 스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귀의하고 나면 더더욱 떠나고 싶지 않았던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은 오직 중생의 걱정을 덜어주시고 부처님과 같은 참된 삶으로 인도해주시면서 한 평생을 포교하시며 사셨습니다.

출가 스님들에게는 스님 중의 스님으로 사표가 되신 이 시대의 선지식이셨습니다. 한편 재가 불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불자의 신행의 목표를 성불에 두어야 한다며 당부하시며 부처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기 속에 있으니 스스로 수행하고 평생 공부하여 참되고 완전한 자신을 찾아가지라고 가르침을 주셨던 우리 불자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불교 공부는 절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자식을 기르며 직장 속에서 일하면서 하는 것이라며 불교학생회, 직장, 대학의 불자단체를 만들어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신 우리들 모두의 진정한 지도법사이셨

습니다. 스님께서서는 불교단체를 지도하시면서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는 데는 재가와 출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불가의 전통 수행과 공부 방식을 신도들에게도 차별 없이 지도해 주셨고 함께 만행의 길도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정무 큰스님께서서는 잠시 고향인 극락세계를 떠나 인간의 몸으로 사마세계의 우리들 곁에 머물며 고향인 극락세계야 말로 살만한 곳이란 것을 일러 주시고는 고향으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스님, 우리들 모두 부지런히 수행공덕 쌓아 스님의 고향 극락세계에 태어나 스님을 다시 뵙게 되기를 발원하며 스님께 마지막 인사를 정중히 올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석가모니불

불기2555년 10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석남사 중심회장

재가제자 원명 이황 분향

曹溪宗 元老議員 圓空堂 正無大宗師 葬儀委員會

- 證 明** 법전
- 葬儀委員長** 종산
- 葬儀副委員長** 지혜
- 葬儀委員** 성수 초우 진제 고산 도문 지중 명선 월서 혜승 현해 고우 법흥 혜정 월파 무진장
 종하 월탄 인환 정관 압도 근일 수산 보성 지관 도원 녹원 도건 활안 이두 원명
 동춘
- 護 喪** 밀운
- 進行委員長** 자승
- 進行副委員長** 보선 법등 현응 혜총
- 進行委員** 설정 지유 월주 정원 송월 성파 능가 혜성 철웅 봉주 흥교 현호 지유 송담 월운
 정련 종범 도영 무비 지하 도법 수경 지신 오현 지성 등각 종진 성우 무관 보광
 통광 현성 혜성 능혜 지안 해인 무문 정태 정찬 성주 법산 종렬 천제 무공 벽봉
 현봉 각성 세민 도진 현각 해남 종범 우승 정념 노현 원혜 웅산 성웅 성문 돈관
 성타 선각 정여 원산 호성 원행 시몽 종삼 영조 범각 원종 법만 인묵 자광 영담
 정만 도문 효탄 혜경 상운 법인 원철 계성 법상 흥선 지현 현조 혜오 종선 수불
 태연 종성 정범 정인 정념 적천 삼혜 청원 원경 견진 정묵 주경 법보 장명 현근
 활중 정문 운성 경성 심우 제정 종호 원정 무관 정오 오심 자현 성우 원혜 의연
 만당 일문 영관 진화 원경 법정 함결 덕수 도정 초격 일관 지홍 덕문 무애 대오
 혜일 각림 향적 법안 성행 정도 장운 원범 토진 종민 범해 정산 영배 법광 혜림
 본해 일운 상화 상덕 일진 탁연 계환 지홍 지성 정운 구과 혜담 보원 친구 재원
 승오 해자 동선 선법 효웅 무상 허운 지산 몽산 경선 종성 평상 현봉 성문 도완
 범산 주혜 법준 원일 동산 현종 현민 혜국 지환 의정 무어 적명 인각 현기 명정
 현산 함주 정광 원웅 현묵 무문 정태 정찬 영진 법웅 신룡 철산 불산 설우 일오
 지현 철산 우송 동각 원각 철우 해남 해권 도일 덕문 지현 지운 법장 지효 일귀
 현진 법광 선지 철운 덕민 종극 지우 청원 도암 원일 광우 명성 정화 정훈 묘엄
 진관 해해 법운 경희 경순 성타 불필 지환 보각 명우 자민 재운 묘관 자광 정덕
 광옥 명수 승혜 정성 해원 묘순 대우 지형 일장 흥륜 해주(무순)
 김의정 홍문표 백창기 선진규 김희옥 홍승희 임희웅 박상필 이은영
 중앙신도회 제2교구교구신도회 인천경기포교사단 용주사신도회 석남사신도회 중심회
- 執行委員長** 정호
- 執行副委員長** 성직
- 執行委員** 묘정 도운 해주 지욱 현중 금선 탄웅 대원 보은 주성 원경 성법 성운 도창 주허
 진성 무이 주오 지언 법공 보광 법정 성송 선도 원오 학수 법명 인쇄 묘엄 선문

증용 광익 성인 각일 성관 성일 정건 관선 정석 성곡 탄무 지우 지거 성원 보경
 성효 성연 지율 성장 성주 선래 덕선 성신 성용 대원 해영 법성 정휴 성안 목윤
 승문 관몽 도성 성행 도문 정완 정명 영명 동현 지강 정문 탄탄 혜명 도현 도은
 우하

都 監 성무
 秉 法 세민 원오 희현 성호
 儀 典 환적
 知 實 본각, 성유
 財 務 응진
 弘 報 덕현
 護 法 법진
 駐 車 거사회
 接 受 종무소
 輓 章 덕만
 茶 角 대현
 院 主 지웅
 門 衆 代 表 정호

능파 정현 정태 무주 범주 상법 해영 정찬 정건 정관 정석 윤석 안월 정귀 정준
 진법 성우 원경 성조 강봉 강운 강설 강월 상봉 원봉 원성 서봉 인봉 영봉 우봉
 성범 인해 인법 인월 환공 환산 성춘 성문 성중 윤공 청곡 청봉 청호 유찬 유진
 동해 일상 상월 석진 효공 효성 지상 해광 우담 성관 성종 성월 진각 진일 성수
 성운 중봉 영정 성법 성로 성재 성조 성현 성용 성목 성주 신룡 성도 성법 성봉
 성윤 성하 성월 성유 성화 성암 성곡 성운 성효 성고 성본 성인 성견 성학 성원
 성오 성장 성산 성관 성파 성노 성타 성송 의탄 성진 성현 성경 성원 성수 성우
 성은 성원 명철 성현 덕신 무아 선관 대우 구담 성천 대아 지강 성수 성국 성신
 성연 진호 성욱 성재 성열 성준 해봉 성공 적인 증랑 효명 시도 효성 법두 성원
 도경 도선 보선 보승 보덕 보종 원담 성모 광원 광범 광륜 법광 성두 성목 성전
 성득 성송 성선 오성 성재 목연 백우 성현 도원 무견 성영

門 徒 代 表 심경
 · 上 佐 호광 문수 진도 도자 보광 용상 무문 세영 세웅 세안 흥원 지행 양일 만도 도성
 성원 실상 본원 금강 대원 석교 석전 대안 중보 흥법 법수 성일 명일 심욱 원인
 도용 보광 성도 법화 보리
 · 孫 上 佐 보문 보우 현수 해운 법인 현담 덕운 법운 광운 성해 영일 원용 묘도 원명 보해

보성 보명 원교 보완 보운 상찰 정명 보선 보연 해산

在 家 門 徒 고불 종오 행지 이황 이건호 임순애 정기웅 이대훈 김근자 주무학 김호철 박정열
윤원근 윤종석 이승원 박재진 박영희 윤종건 박경환 강천희 신승찬 양승이 진선관
박동정 사기순 김강식 김영광 정석모 한복룡 김길용 김의식 허인철 김화수 김혜정
고종욱 김영선 이사현 이규술 류충열 곽동욱 박상수 박균서 류순덕 류승정 김경여
신주철 이흥기 최탁환 정종열 임인혁 조명순 이유경 양희숙 양종찬 이정권 정대영
정동채 김 원 정숙경 이은희 홍억술 방경순 진순덕 최명옥 김재민 신금란 우호태
우호철 기영상 전후교 홍지연 조용석 김화현 김사업 김수영 김향겸 오지용 이승형
김치원 박기태 김경래 전순홍 정강준 홍완선 정우동 박노면 이동욱 김진우 정승호
신종묵 허금탁 예진순 송동열 이제재 김기중 권중서 민경구 김신구 김행신 범장심
금강심 장명순 김기성 황동규 전재근 허 정 이의길 위득량

曹溪宗 元老議員 圓空堂 正無大宗師 追慕日程

- ◎ 초재 10월 5일 수요일 10시 안 성 석남사 031) 676-1444
- ◎ 2재 10월 12일 수요일 10시 2교구본사 용주사 031) 234-0040
- ◎ 3재 10월 19일 수요일 10시 수 원 반야사 031) 202-2319
- ◎ 4재 10월 26일 수요일 10시 여 주 신록사 031) 885-2505
- ◎ 5재 11월 2일 수요일 10시 이 천 영월암 031) 635-3457
- ◎ 6재 11월 9일 수요일 10시 대 구 법왕사 053) 766-3747
- ◎ 49재 11월 16일 수요일 10시 안 성 석남사 031) 676-1444

葬儀行列順序





스님께서 건립하신 용주사 부모은중경탑